

5 선행에 대한 칼빈의 이해

최태영 교수 / 영남신학대학교, 조직신학

1. 들어가면서

16세기 종교개혁 운동의 가장 핵심부에 위치한 ‘오직 믿음’(sola fide) 교리로 말미암아 본의 아니게 상대적으로 가볍게 다루어져 온 선행(good works)에 대하여, 현대 한국 개신교회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것은 개신교회가 선행의 가치를 너무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현대 개신교회 특히 한국 교회가 윤리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이 이구동성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것은 선행을 경시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본다. 종교개혁자들이 선행을 경시한 것으로 여겨 온 것은 큰 오해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신교회의 역사 속에서 선행의 약화가 발견되고 있다. 그리하여 현대 한국 개신교회의 개혁을 염원하면서 여러 성서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선행에 대한 관심 가운데, 칼빈(John Calvin)에 관한 연구 논문을 내어놓고 있음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에 필자는 이러한 관심의 연장선상에서 개혁교회의 창시자에 속하는 칼빈이 선행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선행에 대한 입장을 정립하고자 한다.

2. 칭의보다 성화를 앞세우는 칼빈의 구원론

칼빈의 구원론의 구조를 통하여 그의 선행에 대한 이해의 기초를 파악할 수 있다. 그는 구원을 구성하는 요소를 크게 두 가지로 서술하는데, 곧 화해와 성화이다. 이것을 그는 이중의 은혜라고 말한다.

(신앙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써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중의 은혜를 받는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무흠함을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됨이요, 둘째는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성화됨이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흠 없고 순결한 생활을 발전시키게 한다.¹⁾

칼빈은 스스로 이 두 가지 중에서 후자인 증생에 대하여 먼저 강조하였는데, 그 이유는 믿음은 선행을 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²⁾ 칭의보다도 성화를 앞세움으로써 칼빈은 두 가지 적들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다. 하나는 믿음의 의를 빙자하여 선행을 게을리하는 무율법주의자들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신칭의를 선행을 무시하는 이론이라고 공격하는 로마 교회였다.

칼빈이 이렇게 종교개혁의 핵심사상인 이신칭의 교리보다도 성화론을 앞세우는 이유를 그의 신학정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주지하는 바처럼 칼빈의 신학의 모토는 ‘하나님께만 영광을’(soli Deo gloria)이다.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학이다. 구원론과 같이 인간 중심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주제조차도 하나님 중심으로 해명되고 있다. 그것은 구원의 목적에 대한 그의 언급에서 잘 나타난다.

그는 구원의 목적을 거룩에 둔다.³⁾ 하나님께서 길 잃은 양 같은 우리를

1. Institutes, III, 11.1.

2. Institutes, III, 11.1.

자신과 만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셨다. 하나님과 먼저 결합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주입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곳으로 따라갈 수 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기 원하시는 것이다. 구원의 목적을 거룩에 둔다는 것으로부터 구원의 행위가 인간을 위한 것이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어울리는 인간을 필요로 하여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해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에서도 발견한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세우셨으므로, 그 모범을 우리의 생활에서 실현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 단 하나의 조건 가운데 양자가 되었다. 그것은 우리의 양자됨의 끈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활에서 나타내라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의(righteousness)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창조주에게 사악한 배신행위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주 자신을 버리는 것이다.⁴⁾

구원받은 자로서 의를 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라는 말이다. 구원받은 자는 우리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생활을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리스도처럼 의를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의를 행하는 것이 다른 아닌 선행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선행을 하도록 하기 위해 구원하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의 선행이 구원의 근거는 아니나 구원의 목적이었다면, 칼빈은 선행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라

3. Institutes, III, 6.2.

4. Institutes, III, 6.3.

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3. 선행으로서 칭의를 얻는 것은 아니다

칼빈은 선행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크게 인정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결코 칭의와 연관시키지는 않는다. 칭의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지, 행위를 통해서 얻어 수 없다는 데에 있어서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다.

1) 믿음의 의는 행위의 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칼빈은 믿음을 통해서 얻는 의는 행위를 통해서 얻는 의와 전혀 다르다고 말함으로써 선행이 개입할 여지를 차단한다. “믿음의 의와 행위의 의는 서로 다르고, 한 쪽을 세우면 다른 쪽은 넘어져야 할 정도로 다르다.”⁵⁾ 로마서 3:27에 의하면, 믿음에 의해서 우리의 자랑이 없어진다. “우리가 믿음의 법으로 갈 때, 행위 안에 있는 모든 자랑은 폐기된다. 행위의 의는 율법에 의하여 주어진다. 그런데 믿음의 의는 그 자체의 법을 가진다. 그 법은 행위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들에게 아무런 의도 부여하지 않는다.”⁶⁾ 행위에 의한 의는 결코 믿음에 의한 의와 관련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로마 가톨릭 신학은 믿음의 의와 행위의 의를 상호보충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지만, 칼빈은 그것을 엄격히 분리시킨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는 양자택일의 상황 속에 있는 것이다. 믿음의 의를 얻는 방향을 취할 것이냐, 아니면 행위의 의를 얻는 방향을 취할 것이냐이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그 둘은 전혀 길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믿음의

5. Institutes, III.11.13.

6. Calvin's Commentaries, Romans 3:27.

의를 얻으려고 하다가 부족하면 행위의 의를 보충하여 얻는다거나, 거꾸로 행위의 의를 추구하다가 힘이 부치면 믿음의 의로 보충한다는 식의 사고는 성립할 수 없다.

칼빈은 바울이 율법과 복음을 어떻게 구별하는지를 주목하라고 한다. “율법은 행위에 의를 돌리고 복음은 행위의 도움을 받지 않고 값없는 의를 준다.”⁷⁾ 이로써 칼빈은 행위로서 의롭다고 여김 받지 못함을 분명히 한다. “율법의 의를 위해서는 행위가 필요하지만 믿음의 의를 위해서는 행위가 필요하지 않다. …… 복음이 율법과 다른 점은 의를 행위에 연결시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만 맡기는 것이다. …… 우리는 빈손으로 의를 받게 되는 것이다.”⁸⁾ “바울은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면 믿음의 의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⁹⁾ 행위라는 공로가 있어야만 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의가 아니라는 것을 말함으로써 바울은 믿음의 의는 행위의 의와는 전혀 다른 것임을 강조한다. 우리는 행위의 의는 얻을 수 없고 믿음의 의만 얻을 수 있는데, 믿음의 의에는 행위, 즉 선행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2) 중생한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도 칭의를 얻지 못한다

행위의 의에 미련을 가진 사람은 중생하기 전의 행위는 칭의와 관계가 없지만, 중생한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는 칭의를 얻는다는 주장을 하고 싶어질 것이다. 행위가 사람 자신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선물이며 중생의 결실이라면, 사람은 이런 행위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칼빈은 어떤 명칭이 그 행위들을 미화하든지 간에, 모든 행위는 배제된다고 말한다. “그리스도의 은혜인 성화와 의는 서로 다르다. 따라서 의롭게 하는 힘을 믿음에 돌릴 때에는 영적인 행위(spiritual works)

7. Institutes, III.11.17.

8. Institutes, III.11.18.

9. 롬 4:2 이하, Institutes, III.11.19.

까지도 중요시되지 않는다.”¹⁰⁾ 칼빈은 이것을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아브라함의 생활은 영적이었고, 거의 천사 같은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기에 충분한 행위의 공로가 그에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¹¹⁾ “그리스도인은 비록 하나님의 영에 의해 중생하였으나, 그가 받을 영원한 의는 그가 하고자 하는 선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¹²⁾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선행일지라도 그것이 그 자체로 칭의와 연관된다는 것은 철저히 부정한다.

칼빈에 의하면 선행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의 표준이 인간에게는 너무 높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행위로는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표준을 가지고 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의는 사람의 행위로는 결코 만족시킬 수 없다. …… 하나님의 선택된 그릇인 바울이 자기는 양심에 거리 끼는 일이 없지만, 그것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을 때에(고전 4:4) 그는 이런 의를 진지하게 숙고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¹³⁾ 사도 바울과 같은 성자도 자신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면 누가 거기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하겠는가 하는 뜻이다.

그래서 성경의 약속은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하지 않는다고 칼빈은 말한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에 근거하여 무언가를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은 아예 없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신뢰하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를 얻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행위와는 무관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의 행위에 의지한다면, 그 약속들은 흔들릴 뿐이라

10. Institutes, III, 11, 14.

11. Institutes, III, 11, 14.

12. Institutes, III, 11, 16.

13. Institutes, III, 12, 2.

고 성경은 선언한다. 그러므로 의가 우리를 떠나든지, 그렇지 않으면 행위를 문제로 삼지 않고 신앙만이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신앙은 원래 눈을 감고 귀를 곤두세우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약속만을 들으려고 애쓰며, 사람의 가치나 공로는 전혀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¹⁴⁾

사람의 가치나 공로와 같은 선행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아야만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점에서 스콜라 학자들과 칼빈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한다.

3) 칭의와 선행에 대한 칼빈과 스콜라 학자들과의 차이

칼빈은 비교적 건전한 스콜라 학자들과 칭의의 시작에 관해서는 공통점을 가진다. 즉, 죄인은 정죄로부터 값없이 해방되어 의를 얻으며, 이 일은 죄의 용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믿는다. 차이점은 스콜라 학자들은 칭의라는 말에 중생을 포함시킨다. 즉, 우리는 중생에 의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율법에 복종하도록 개조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중생한 사람의 의를 이렇게 묘사한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한 번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은 선행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며 선행의 공로에 의해서 받아들여진다.”¹⁵⁾

그러나 칼빈은 신자라도 믿음에 의한 의를 얻을 뿐임을 주장한다. 주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선언하셨는데(롬 4:3), 이것은 아브라함이 아직 우상을 섬겼을 때가 아니고, 그가 거룩한 생활을 다년간 훌륭히 계속한 후였다. 그러므로 그는 오랫동안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했으며, 죽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율법에 순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진 의는 믿음에 의한 것이었다. 이것을 보아

14. Institutes, III, 13, 4.

15. Institutes, III, 14, 11.

우리는 바울의 추리에 따라 그의 의는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고 단정한다”(엡 2 : 9).¹⁶⁾ 마찬가지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합 2 : 4)는 예언자의 말은 불경건하고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신자들을 상대로 한 것이며, 신자들에게 믿음에 의한 생명을 약속한 것이라고 말한다.¹⁷⁾

칼빈에 의하면 스콜라 학자들은 선행을 찬양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것을 훔쳐서는 사람에게 넘겨주는 사람들이다. 선행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본다면 그 선행은 사람을 칭찬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며 그것을 공로라고 부를 수도 없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돌에서 기름을 짜내려는 듯이(as oil from a stone), 선행을 자유의지의 능력에서 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¹⁸⁾ 그들도 첫째 원인이 은혜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유의지를 배제하지 않고, 자유의지에 의해서 모든 공로가 성립된다고 주장한다. 칼빈에 의하면 이런 생각은 피터 롬바르드(P. Lombard)에게도 있었는데, 그는 끊임없이 어거스틴을 말하면서도, 어거스틴이 선행에서 야기되는 영광을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넘겨주지 않으려고 심히 주의한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¹⁹⁾

스콜라 학자들의 논법에 의하면, 우리는 율법을 버리든지 아니면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받는 교리를 버리든지 하여야 한다. 그들은 성경에 근거하여 율법의 행위의 칭의적 가치에 대해 주장한다. 그들은 율법의 약속이 폐지되지 않고 여전히 유효하므로 이것을 출발점으로 하여,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추론하는 것이다.²⁰⁾

16. Institutes, III, 14, 11.

17. Institutes, III, 14, 11.

18. Institutes, III, 15, 7.

19. Institutes, III, 15, 7.

20. 그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말씀은 다음과 같다. 신 7 : 12-13, 렘 7 : 5-7, 23, 신 11 :

26. 참조, Institutes, III, 17, 1.

그러나 여기에 대해 칼빈은 “주께서는 율법을 완전히 준수한 사람이 아니면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았고 그런 사람은 없으며,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서 전 인류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 있으며, 이 저주와 진노에서 해방되려면 율법의 권능에서 떠나서 자유를 얻을 필요가 있다.”²¹⁾고 말한다. 칼빈의 주장은 우리가 행위로 율법의 약속을 실현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율법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약속들도 하나님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모두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율법의 약속에는 율법을 지킨다는 조건이 붙어 있고, 율법을 지켜야만 약속도 성취되는데, 이 조건은 결코 지켜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다. 의의 일부는 우리의 행위에 맡기고 남은 부분을 자신의 사랑으로 보충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성취된 의로서 그리스도만을 가리키신다.²²⁾

칼빈도 행위에 의한 의를 생각하고 있다.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전혀 흠이 없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의를 얻을 수 있다고 한 성경을 상기시킨다. 그러나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행위에 의한 의를 인간이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믿음의 의를 얻으려면 율법의 의를 버려야 한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제시되어 있지만, 이 자비는 결코 율법을 행하는 공로에 의해서 우리에게 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을 칼빈은 다윗의 시편에서 증거한다. 즉, 시편 19 : 12에서 다윗은 율법의 유익을 높이 찬양하나 곧 외치기를,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말한다. 자기의 허물로 인하여 율법의 유익을 누리지 못한다는 말이다. 또 시편 25 : 10에는 여호와와 모든 길은 인자와 진리라고 한 후에 곧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시 25 : 11)라고 기도한다. 시편 기자는 율법은 선하지만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율법의 선한 요구에 응답할 수 없음을

21. Institutes, III, 17, 1.

22. Institutes, III, 17, 2.

고백한 것이다.

4. 칭의의 교리는 선행을 배제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칭의를 얻기 위해서는 선행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칼빈의 견해를 살펴보았다. 그래서 칼빈의 칭의론은 선행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현저히 약화시키는 것으로 여기기 쉽다. 그러나 칼빈은 선행의 가치와 그 중요성을 결코 약화시키지 않았다. 먼저 칭의의 교리가 선행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살펴보자.

1) 칭의와 선행의 분리가 선행을 약화시키지 않는다

칼빈의 시대에 칭의의 교리를 비난하면서 그것은 선행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 그들의 비난을 직시하면서 칼빈은 칭의와 선행에 대하여 상세히 변론한다. 개혁자들이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 아니며 행위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자, 비난하는 자들은 개혁자들이 선행을 폐지하고, 선행을 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유혹한다고 중상하였다. 또 칭의는 값없이 죄를 용서하는 데 있다고 가르치자, 이것은 의로 가는 길을 너무 쉽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개혁자들의 교리는 죄를 짓는 경향이 너무도 강한 인간들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만든다고 하였다.²³⁾ 그들의 비난에 대해 반박하면서 칼빈은 칭의교리가 오히려 행위를 장려하며 강화한다고 말한다.

23. Institutes, III, 16.1. 칼빈과 같은 개혁자들이 당시의 로마 교회의 신학자들로부터 받은 이러한 비난들은 칼빈으로서는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이었지만,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보면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이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그것은 오늘 우리 장로교회가 칭의의 교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선행이 없는 믿음이나 선행이 없이 성립하는 칭의를 꿈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곧 믿음과 선행은 굳게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칭의는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²⁴⁾

칼빈에게는 칭의는 믿음에 의해서만 얻는 것이지만, 그 칭의는 선행이 없는 칭의가 아니다. 뒤집어 말한다면, 칭의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은 선행을 유발하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선행을 일으키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으로는 칭의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결론이다.

칼빈에 의하면, 값없는 용서는 죄를 짓도록 선동하지 않는다. 오히려 죄를 억제하는 가장 강력한 교리다. 그는 죄의 용서가 너무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선한 것으로 값을 치를 수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거저 주시는 선물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값없이 오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편에서는 자신의 가장 거룩한 피를 흘리셔서 많은 값을 치르고 사신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를 제외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만족시킬 만한 대속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칼빈은 죄짓는 것과 관련하여 대단히 중요한 주장을 한다. “이 사실을 배운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피를 흘리시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는 너무도 추악해서 이 가장 순결한 피의 샘이 아니면 깨끗해질 수 없다. 이 사실을 듣는 편이 선행을 뿌림으로써 깨끗해진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사람들의 마음에 죄를 무서워하는 생각을 더 많이 일으킬 것이 아닌가?”²⁵⁾

칼빈이 행위와 칭의를 분리하는 것은 선행을 약화시킬 의도가 전혀 없었다. 선행을 하지 말라든지 선행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선행에

24. Institutes, III, 16.1.

25. Institutes, III, 16.4.

의지하며 그것을 자랑하며 그것으로부터 구원이 온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²⁶⁾ 선행은 중요한 것이지만 칭의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었다.

2) 칭의와 성화의 유대 관계

칭의와 선행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칭의와 성화의 관계가 칼빈의 구원론에서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칼빈은 그의 「기독교강요」 3권 3장부터 10장까지 성화에 대하여 다루고, 다음 11장부터 18장까지 칭의에 대하여 다룬다. 그런데 칼빈은 칭의를 다루면서도 계속 성화의 교리를 말하고 있다. 유정우는 그 이유를 로마 교회가 칭의와 성화를 혼동하며 구별하지 않고, 혼합하여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변증의 필요에 의해 그러한 노력을 하였다고 본다.²⁷⁾ 그러나 거기에는 또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여진다. 즉, 칼빈은 칭의와 성화가 서로 구별되지만 분리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유대관계이다. 칼빈에게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존재하는 것처럼, 구원에 있어서도 칭의와 중생 또는 화해와 성화가 서로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존재한다. 칼빈에게 있어서 칭의와 성화가 이런 관계 속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이다. 즉,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데, 그리스도와 연합으로부터 한편으로는 칭의가 나오고 다른 편으로는 성화가 나오는 것이다. 믿음에 의하여 의롭다 함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기 때문이며,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으면 동시에 거룩함도 붙잡지 않을 수 없다.”²⁸⁾

26. Institutes, III, 17, 1.

27. 유정우, “칼빈의 구원론에 나타난 선행의 위치와 중요성”(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 1998), 174.

는 것이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기 때문이다(고전 1:30).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동시에 거룩하게 만들지 않으시면서 의롭게 하시는 일은 결코 없다. 이 은혜들은 영원히 풀 수 없는 유대 관계로 결합되어 있다.”²⁹⁾

우리는 둘을 구별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 안에 두 가지를 다 포함하신다. 그 둘은 서로 뗄 수 없게 결합되어 있다. 의를 얻기 원한다면 우선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서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둘로 나누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고전 1:13). 주님은 동시에 두 가지를 함께 우리에게 주신다. 한 쪽이 있으면 반드시 다른 쪽도 있다. 거룩함 또는 성화는 반드시 행위 곧 선행을 지시한다. 그러므로 칼빈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서 칭의가 선행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행위 없이가 아니면서도 행위를 통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참여함으로써 의롭다 함을 받으며, 그리스도 안에 참여함에는 의에 못지않게 성화도 포함되기 때문이다.³⁰⁾

유정우는 칼빈이 성화가 칭의의 부수적인 의미로 고려되는 일직선화에 반대하였다고 말한다. 칼빈은 의도적으로 이 두 가지 은혜를 동등한 권리를 갖는 것으로 병렬적으로 위치시킨 것이다.³¹⁾ 오염석도 의인과 성화 두 요소를 지금까지 독립적인 것이나 원인과 결과로 간주해 왔지만, 칼빈은 믿는 자와 그리스도의 연합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양자의 상관관계를 다루었

28. Institutes, III, 16, 1.

29. Institutes, III, 16, 1.

30. Institutes, III, 16, 1.

31. 유정우, 전제서, 176.

다고 하였다.³²⁾

칼빈의 신학에 관한 한 권위자인 니젤(W. Niesel)은 칭의와 성화를 한 분 그리스도의 은총이라는 차원에서 인식해야 할 당위성을 강력히 주장한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은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은총을 받는 것이다. 이 은총의 의미를 인식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는 성화 혹은 칭의를 전도시켜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은총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 된다.”³³⁾ 그에 의하면 만약 칭의와 성화를 직접적으로 서로 관련시킨다면 그는 이 두 은총의 선물을 혼동하고 마는 것이요, 따라서 구원의 확실성을 와해시키고 마는 것이라고 하였다.³⁴⁾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은혜를 동시에 주려고 하므로 성화가 시간적으로 또는 발생적으로 칭의 다음에 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칭의가 구원의 중요한 근거로 그리고 성화가 그 다음에 오는 둘째 은혜로 설명하는 것은 칼빈에게 타당하지 않다.³⁵⁾ 필러는 칼빈이 칭의와 성화가 병렬적인 위치에서 인간을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³⁶⁾

칼빈이 칭의와 성화의 동시성을 강조하는 목적은 성화를 두 번째 단계의 은혜로 말함으로써 믿음과 선행을 분리시키고자 하는 로마 교회의 의도를 분쇄하기 위함이다. 만약 믿음과 선행이 분리되면,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선행도 칭의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논리가 성립하는 것이다. 그래서 칼빈은 칭의와 성화의 동시성을 말함으로써 믿음만으로 얻는 칭의라는 복음을 분명히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여러 부분으로 나뉠 수 없는 것과 같이 그의 안에 있는 두

32. 오영석, 「신앙과 이해」(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130-131.

33. Wilhelm Niesel, *Die Theologie Calvins*, 이종성 역, 「칼빈의 신학」(서울: 기독교서회, 1983), 135.

34. Ibid.

35. Calvin's Commentaries, Colossians 1: 22.

36. Alfred Gohler, *Calvins Lehre von der Heiligung*(Munich, 1934), 88.

속성, 즉 의(righteousness)와 거룩(sanctification)도 서로 분리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 가운데 받아들이신 사람에게 동시에 양자의 영을 주셔서(롬 8: 15), 이 영의 힘으로 자신의 형상에 따라 그 사람들을 다시 만드신다.³⁷⁾

칼빈은 그리스도의 두 속성을 의와 거룩으로 구별한다. 그러나 이 두 속성은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의롭다고 받아들이신 사람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성화시키시는 것이다. 바르트도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관계와 같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두 본성처럼 칭의와 성화도 서로 긴장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또 선행이 약화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³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서만 의롭다 함을 받는다. 그러나 의롭다 함을 받는 모든 자들이 그들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도록 주님에 의하여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 또한 사실이요 확실하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한다. “신실한 자들이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를 배우게 하라.”³⁹⁾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하여 우리에게 보내신 바 되었으므로, 그들의 불완전한 신앙에 의해 그리스도가 찢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5. 하나님은 선행을 요구하신다

칼빈은 주께서 그의 종들이 바르고 성결한 생활로 보답할 것을 요구하신다고 말한다. 그 목적은 이것은 주의 선하심을 조롱하는 자가 없도록 하시

37. Institutes, III.11.6.

38. K. Barth, KD, IV/2, 568ff.

39. Calvin's Commentaries, Romans 8: 13.

다. “성자들이 하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판단한다면, 공정한 보상으로서 치욕을 받아야 할 것뿐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⁴⁷⁾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우리는 완전할 수 없다. 선행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설령 참된 신자요, 성자라 하더라도 그들이 행하는 그 행위 자체는 결코 선행이 아닌 것이다. 그것을 선행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행으로 평가하시고 받아 주시는 것이다. 이것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 받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믿는다고 하여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우리 자체는 불결한 죄인이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의인이신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접붙여 줌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 덧입혀진 존재로 여겨 주시는 것이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행위 그 자체는 여전히 불결하기 이를 데 없는 행위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행으로 여겨 주시는 것이다.

2) 선행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칼빈에 의하면 구속과 부르심의 목적을 생각하면 선행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극된다. 그는 성경의 많은 구절들을 열거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한다.⁴⁸⁾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의에 순종하기 위함이고,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불결한 생활이 아니라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불법한 욕망을 버리고 성화되는

47. Institutes, III, 14, 9.

48. 그가 열거하는 구절들은 다음과 같다. 요일 4:19, 10, 히 9:14, 히 10:29, 눅 1:74-75, 롬 6:18, 롬 6:4, 6, 골 3:1-3, 마 6:20, 딤후 2:11-13, 고전 3:16-17, 고후 6:16, 엡 2:21, 엡 5:8-9, 살전 5:4-5, 살전 4:7, 살전 4:3, 딤후 1:9, 롬 6:18, 요일 4:11, 요 13:34, 요일 3:10, 요일 2:10-11, 요일 3:3, 고후 7:1, 벧전 2:21, 요 15:10, 요 13:15.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받은 것은 거룩한 부르심이며, 그 요구하는 것은 순결한 생활이요, 그 이하의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목적은 의에 순종하려는 것이다.⁴⁹⁾

선행을 하는 것은 로마 교회 학자들이 말하듯이 공로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다. 모든 사도의 글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모든 선한 일을 가르쳐 주는 충고와 격려와 책망의 말이 가득하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공로를 말하는 일이 없다. 성경은 선행을 공로를 세우는 것으로 내세우지 않는다. 칼빈은 로마 교회와는 달리 선행은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가르친다. 그에 의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를 근거로 우리에게 선행을 권고한다(롬 12:1). 우리의 선행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상기시킨다(마 5:16). 로마 가톨릭 학자들은 공로를 역설함으로써 선행을 강요하였지만 칼빈은 선행의 근거와 목적은 하나님의 자비와 영광이라는 것이다. 그들 중에서 어느 것이 옳으냐는 데에 대하여 칼빈은 고린도후서 9:7의 말씀으로 답변한다. 하나님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을 금지하시고,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이다.⁵⁰⁾

칼빈은 시편 130:4에서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설명한다. 즉, 하나님의 자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자비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의 기초가 된다고 예언자가 가르쳤다는 것이다. 사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의미하며, 주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서 선행을 가리킨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출발점은 그의 자비를 신뢰하는 데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공로란 말로 생각될 수 없다. 왜냐하면 경외는 죄의 용서를

49. Institutes, III, 16, 2.

50. Institutes, III, 16, 3.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⁵¹⁾

3) 선행이 용납되는 조건

칼빈은 율법의 약속들은 복음을 통해서 실현됨을 주장한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하므로, 복음의 약속이 율법의 약속들을 대체하는 것이다. “복음의 약속은 죄를 값없이 용서한다고 선포함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께 용납될 만하게 만들 뿐 아니라, 우리의 행위까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만든다.”⁵²⁾ 우리의 행위가 율법 아래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 수 없지만, 복음 아래서는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다. 율법의 잣대로서는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좋게 평가하실 수 없지만, 복음의 은혜 아래서는 우리의 서투른 행위까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평가해 주시는 것이다. 여기서 칼빈은 선행에 대한 우리의 주제에 대하여 중요한 주장을 하였다. “그러므로 주께서 율법에서 의와 거룩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치러 주신다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⁵³⁾ 하나님은 신자들의 선행에 대해 보상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나 칼빈은 곧 이런 보상에서 선행이 은혜를 얻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한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하였지만, 의미상으로는 하나다.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아버지로서의 너그러움과 선하심으로, 말하자면 주관적으로 평가하신다는 것이다. 공정하게 평가하면 우리의 행위는 모두 부패한 것이어서 덕이라기보다 죄라고 인정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불완전한 점을 보시지 않고 용서하시고 받아 주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받아 주심에는 믿음만을 토대로 한 칭의와

51. Institutes, III, 16, 3.

52. Institutes, III, 17, 3.

53. Institutes, III, 17, 3.

죄의 용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칼빈은 강조한다. 선행도 죄의 용서를 받음으로써 오점을 깨끗이 씻음 받아야만 약속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⁵⁴⁾ 선행은 그 자체로는 하나님의 인정이나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오직 복음에 의하여 죄 용서와 칭의를 받은 후에야 용납된다는 것이다.

4) 선행의 용납의 이유 : 하나님이 그 행위의 근원이시기 때문이다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양자로 삼으심으로써 그를 성별하신다. 그를 새로운 피조물로서 받으시는 것이다. 신자들은 부르심을 받은 후 이 용납에 의해 그 행위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신자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한 행위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행위 때문에 신자들을 받으시는 것은 오직 자신이 그 행위의 근원이시기 때문이란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한다. ……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시기 때문에 그들을 기뻐하시며 사랑하신다는 것뿐이다.⁵⁵⁾

칼빈은 중생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고 정의한다. 중생한 신자의 모습은 하나님 자신의 모습의 반영이고, 그러므로 그들의 선행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자의 선행을 그 자체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는 것은 아니다. 경건한 자들도 죽을 육에 싸여 있으므로 그들의 선행은 아직도 불완전하며 육의 죄악의 냄새를 풍기고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죄인이나 그 행위를 그대로는 받으실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포용하실 수 있다.”⁵⁶⁾ 행위를 그 자체의 가치

54. Institutes, III, 17, 3.

55. Institutes, III, 17, 5.

에 따라서 평가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하지 못하며, 사람은 자기의 어떤 행위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

그러나 칼빈은 죄를 용서받은 후에 따르는 선행은 다르게 평가한다. 그것은 그 자체의 가치에 의하지 않고 다른 입장에서 평가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행위에 있는 모든 결함은 그리스도의 완전성으로 덮이고, 모든 오점은 그리스도의 순결로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정리한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모든 허물의 죄책이 도말되고, 선행까지도 항상 더럽히는 허물의 불완전이 문혀 버린 후에는 신자들이 행하는 선행은 의롭다고 간주된다. 바꿔 말하면 의로 인정된다.”⁵⁷⁾ 여기서 칭의와 선행의 용납을 구분하지 않으면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선행이 용납된다는 것은 선행을 행한 자를 그 선행에 의하여 의롭다고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말하는 바는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용납하신다는 뜻이다.

칼빈에 의하면 “이신칭의는 행위에 의한 의의 시초이며 기초이며 원인이며 증명해 주는 것이며 본체이다.”⁵⁸⁾ 사람이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 함을 받으므로 그 자신이 의로울 뿐만 아니라, 그의 행위까지도 자체의 가치 이상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말한다.

용서를 받은 후에 하는 행위라야 용납되기 시작한다. 그 원리는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 원리와 같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무죄로 인하여 우리의 불의가 덮여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롭게 된다. 이와 같이 우리의 행위도 모든 허물이 그리스도의 순결에 의하여 문혀 버리며 우리에게 책임이 돌려지지 않기 때문에 의롭고 또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당연히 믿음으로만 우리

56. Institutes, III.17.5.

57. Institutes, III.17.8.

58. Institutes, III.17.9.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까지도 의롭다 함을 얻는다고 말할 수 있다.”⁵⁹⁾

칼빈은 여기서 행위의 의는 믿음의 의에 종속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결과가 원인에 종속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따라서 믿음의 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행한 선은 그 자체만으로는 하나님께 용납되지 않으므로 선이라고 할 수가 없다.⁶⁰⁾

칼빈에 의하면, 의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은 그 생활이 거룩하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의 자체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추구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의는 이신칭의보다 앞설 수 없다. 이신칭의가 그 근본이다.⁶¹⁾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실존을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의인이 되어야 한다. 선행을 행해야 한다. 그 거룩한 행위로서 의인임을 나타내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다고 말하는 선행은 그 자체로서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될 만한 선행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의에 가까워지는 노력일 뿐이다.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은 믿음 때문이지 의에 가까운 행위 때문이 아닌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으로 인정을 받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5) 야고보서 2장에 대한 해석

바울의 이신칭의 교리에 있어서 야고보의 견해는 걸림돌이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았다. 그에 대하여 칼빈은 야고보서가 이신칭의 교리를 해치지 않으면서 선행의 가치를 잘 가르쳐 주는 서신이라고 이해한다.

칼빈에 의하면 야고보의 의도는, 신자가 마땅히 행할 일을 전연 소홀히 하면서도 거짓으로 믿는다고 자랑함으로써 그 불신앙을 노골적으로 폭로하

59. Institutes, III.17.10.

60. Institutes, III.17.10.

61. Institutes, III.17.10.

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확신을 조롱하려는 것이다. 그의 의도는 진정한 믿음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경박한 사람들이 내용 없는 믿음의 모양만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방탕한 생활에 자신들을 내맡기고도 태연한 그 어리석음을 폭로하려는 것이었다.⁶²⁾

칼빈에 의하면, 야고보는 신앙과 선행이 분리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야고보는 구원의 근거로서의 믿음의 역할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처음부터 잘못된 신앙고백에 대해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신앙이 있으면”이라고 하지 않고,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면’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위선자들이 자기들에게 없는, 이름만의 공허한 신앙을 자랑하고 있음을 분명히 암시하는 것이다.⁶³⁾ 신앙과 사랑이 분리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공허한 말일 뿐이라는 것이다.

야고보는 선행 없는 믿음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칼빈은 말한다. “선행의 증거가 없는 믿음은 공허한 꾸밈이다. 왜냐하면 선한 나무의 살아 있는 뿌리로부터 열매는 항상 나오기 때문이다.”⁶⁴⁾ 칼빈은 야고보서 2 : 21⁶⁵⁾을 의의 전가가 아니라 의를 공표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진정한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 함을 얻은 사람은 순종과 선행으로 그 의를 증명한다는 것이다.”⁶⁶⁾ 야고보는 신자들을 향해서 선행의 열매가 있는 의를 요구하며, 선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롭다고 인정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선행은 믿음의 증거이다. 야고보의 목적은 선행은 언제나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이려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아브

62. Institutes, III, 17, 11.

63. Calvin's Commentaries, James 2 : 14.

64. Ibid., James 2 : 18.

65.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약 2 : 21).

66. Institutes, III, 17, 12.

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받았다고 선언함으로써 그는 칭의의 증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야고보는 바울과는 전혀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는 자라도 행위로서 자기의 믿음의 실재를 증명해야만 한다는 것이다.”⁶⁷⁾

계속하여 칼빈은 야고보가 행위는 믿음과 동행하고, 또 믿음은 행위를 일으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말하였다. 야고보서 2 : 22에 대하여 그는 “여기서의 질문은 구원의 원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 행위가 신앙에 반드시 동반되는가 하는 것이다.”⁶⁸⁾ 라고 말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행위에 의해 완성된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믿음은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믿음이 행위로부터 그 자신의 완성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이렇게 하여 참됨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행위에 의하여 완성되었다고 말한다. “야고보가 믿음이 완성된다는 말을 한 이유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한 것이 어떤 종류의 신앙이었는데 그를 보여 주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즉, 그것은 효과 없는, 무익한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었다는 것이다.”⁶⁹⁾

6. 맺는 말

흔히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칭의론을 강조하고, 또 믿음만 강조한 데 비하여 선행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편견을 갖기 쉽다. 로마 교회가 믿음과 선행을 구원의 조건으로 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었고 개혁자들은 그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선행은 로마 교회의 강점이고 개신교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유승원은 “솔라 피데는 믿음이 적절한 선행과 아무 상관도 없다는 인상을 주는 바 없지 않았고, 실제로 역사 속의 개신교는

67. Calvin's Commentaries, James 2 : 21.

68. Ibid., James 2 : 22.

69. Ibid., James 2 : 23.

상당한 정도로 윤리적 실천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⁷⁰⁾ 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 특히 칼빈은 누구보다도 선행의 가치를 깊이 인식하고, 그것을 강조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선행이 필요하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발견한다. 또 참다운 선행은 믿음이 전제되어야 하며, 믿음 없이는 어떤 선행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원 얻는 믿음, 곧 칭의를 받는 믿음은 반드시 선행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선행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믿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따라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오늘 우리 한국 개신교회 특히 개혁장로교회가 개혁자의 신학사상을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그 핵심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구원론 내지 윤리적으로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음을 본다. 특히 윤리적인 면에서 개혁자들이 그렇게 비판했던 로마 교회보다도 오히려 더 낮은 수준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지탄받고 있다면 종교개혁자 칼빈 앞에 면목이 없는 후손들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선행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써 참으로 개혁교회다운 교회로 개혁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다함으로써 칼빈의 ‘하나님께만 영광’(soli Deo gloria)이라는 소망이 우리 한국 교회와 사회에도 흘러넘치게 되었으면 한다.

70. 유승원,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신학교육』 18호, (2001.6), 6.

6 칼빈의 관점에서 본 타락전·타락후예정론 논쟁

김종희 교수 / 천안대학교, 교회사

1.

다우이는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칼빈의 관점이 타락전예정론적일지라도, 예정론은 칼빈의 체계에서 구속론의 일부분으로 나타난다.”¹⁾라고 말함으로써 칼빈을 타락전예정론자(supralapsarian)라 보고, 벌콕은 칼빈이 인간의 최초의 범죄가 예정되었다고 본다는 점에서 타락전예정론자라고 생각한다.²⁾ 바르트는 칼빈을 타락전예정론자로 보는 오텐³⁾의 입장과 달리 칼빈

1. E. A. Dowey, *The Knowledge of God in Calvin's Theology*(New York and London: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2), p. 186.
2. “데이프 박사에 의하면, 고려되는 두 관점들은 그 본래적인 형식에 있어서 인간의 타락도 신적 작정에 포함되었느냐는 문제에 관한 입장의 차이였다. 인간의 타락의 구성 요소가 되는 인간의 최초의 죄가 예정되었는가, 아니면 이것은 단지 신적 예지의 대상이었는가? 그것들의 본래적인 형식에서 보면, 타락전예정론은 전자의 입장이고 타락후예정론은 후자의 입장이다. 이런 의미에서 칼빈은 분명히 타락전예정론자였다.”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6), p. 118.
3. H. Otten, *Calvins theologische Anschauung von der Prädestination*(München, 1938), p. 91f.